

# 수도권 간호학과 노린다면 '학종'

(학생부종합전형)

##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 ① 간호대학

정시모집 수능 반영 비율도 따져야  
115개교서 정원내 총 9680명 선발  
전문대도 81개교는 4년제 과정 모집



오중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2019 전국 일반간호학과 모집정원)

구분	수시			정시	합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전국 (115개교)	5,236 (54.1%)	1,694 (17.5%)	238 (2.5%)	2,512 (26.0%)	9,680
서울 (12개교)	203 (19.9%)	366 (35.9%)	160 (15.7%)	290 (28.5%)	1,019

2019 전국 일반대학 간호학과 정원내 모집인원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 115개교에서 9680명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은 7168명(74.0%), 정시 모집은 2512명(26.0%)로 수시 선발 비율이 높다. 수시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5236명(전체 모집인원의 54.1%)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종합전형 1694명, 논술전형 238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12개교의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1019명으로 수시 729명(71.5%), 정시 290명(28.5%)을 선발한다. 수시 전형유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66명(35.9%)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 203명, 논술전형 160명 순이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과는 달리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많다. 논술전형 선발인원도 중앙대 72명, 이화여대 30명, 가톨릭대 22명, 성신여대 18명, 경희대 10명, 한양대 8명 등 160명을 선발한다.

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모집한다.

일반대학 학생부 중심 전형의 경우에도 전년도 수시 합격자 평균 교과 성적을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이 대체로 1.2등급에서 1.9등급, 경기 및 인천 소재 대학이 1.4등급에서 적어도 3.6등급 이내 정도이며, 지방 소재 대학들도 대체로 2등급부터 4등급 이내임을 참고하여 지원한다.

다만,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교과적성 우수자 전형은 가천대 합격자 70% 컷이 2.8등급, 을지대(성남) 합격자 평균 3.3등급, 삼육대 70% 컷 4.0등급 정도로 내신에 비하여 적성고사의 변별력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유의한다.

중앙대,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인하대 학생부교과 전형과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등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므로 이들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수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학에 따라서 간호학과는 대체로 인문, 자연 통합 선발을 하지만, 가천대(수시), 가톨릭대, 강원대, 경희대, 부산대, 성신여대(정시), 연세대(서울, 원주), 중앙대, 한양대 등은 인문·자연 계열별로 분리하여 선발을 하므로 참고하여 지원한다.

## 카이스트 연구진

# 내시경수술 로봇, 돼지 담낭 절개 성공

카이스트 연구진이 원격 내시경수술 로봇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담낭을 절개하는데 성공했다.

카이스트는 기계공학과 미래의료로봇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원격 내시경수술 로봇 '케이-플렉스'가 지난 달 17일 돼지 담낭 절개 수술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연성 내시경 시장의 활성화와 암 치료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플렉스는 입, 항문, 요도 등 우리 몸에 있는 통로를 따라 이동하며 몸속을 관찰하는 로봇이다. 조직에 이상이 있으면, 초소형 로봇 팔이 나와 수술을 진행한다.

연구진은 돼지 배의 표면에 만든 절개 부위에 케이-플렉스를 삽입해 질병부위 인근의 담낭으로 로봇을 접근시켰다. 내시경 로봇에서 나온 지름 3.7mm의 소형 수술도구가 간을 찢어 수술을 위한 시야를 확보했다. 이어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



K-FLEX를 조종기로 조작하는 모습. /카이스트

간과 담낭 사이를 절개했다.

수술은 연구팀이 내시경 앞부분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신체 내부를 모니터링하며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를 총괄한 권동수 교수는 "이번 실험은 국내 최초로 유연한 내시경로봇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담낭을 절개,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교육청 '문제유출 의혹' A고 특별감사

서울시교육청이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구 A고등학교에 대해 16일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본청 감사관실 직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은 이날 오전 A고를 찾아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팀은 현재 논란인 문제유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 학교 내신시험 관리와 성적처리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살펴 예정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앞서 특별장학 결과와 무관하게 사회적 논란이 크고 학교도 감사를 요청해 감사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작년 1학기 이후 치러진 모든 시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고는 보직부장 교사 B씨가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딸들에게 미리 시험문제를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A고에 대해 특별장학(조사)을 실시한 바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쌍둥이 딸들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점과 이들이 유명 수학학원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다니는 반에 속했다는 점, 수학 시험에서 같은 오답을 적어낸 적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의혹이 확산하자 B씨는 "딸들 성적이 1학년 1학기 121등과 59등이었다가 같은 학년 2학기 5등과 2등으로 올랐다"며 올해 성적이 갑자기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또 "(시험문제에) 유일한 접근은 결재를 위해 오픈된 교무실에서 약 1분 정도 이원목적분류표와 형식적 오류를 잡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목적분류표에는 각 문항이 평가하고자 하는 바와 배점, 정답 등이 담겨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사 부모와 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에는 이러한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16일 오전 9시까지 530여명이 동의했다. /한용수 기자 hys@

# 중앙대 등 11개교, 220억 혁신지원 받는다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

###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는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대상 11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5개 권역에서 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학교별로 2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국민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강원대와 대구한의대, 충청권에서는 대전대와 충남대가, 호남·제주권에서는 전주대와 호남대가,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경성대와 동아대가 선정됐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학교의 증장기적 특성화에 따른 발전전략이 아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예비 선정대학 명단)

/자료=교육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	충청	호남·제주	부산·울산·경남
국민대, 성균관대, 중앙대	강원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충남대	전주대, 호남대	경성대, 동아대

닌 개별 사업에 맞춰 추진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교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대학혁신전략 ▲종합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최종 선정 여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선정대학의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해 내년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대학 자율성 확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지원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해 하반기에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ki@

## 서울대 김형숙 동양화과 교수

### 한국미술교육의 지평 출간

서울대학교는 김형숙(사진)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가 '한국미술교육의 지평'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미술교육의 지평은 한국의 근·현대 역사에서 두드러진 이슈를 미술교육의 맥락에서 해석한 연구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현대미술교육의



시발점은 8·15 해방 이후의 시기"라며 "당시 우리나라에 미술대학이 설립되었고 미국에서 영향받은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이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책은 한국전쟁 시기에 빠라와 같은 시각 이미지에 재현된 이데올로기 전쟁의

성격을 파헤친다. 아울러 한국전쟁기에 국가, 반공, 기술이라는 핵심어로 구성된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정책을 다룬다. 김 교수는 1954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 시기의 미술교육을 오늘날 우리 미술교육의 현주소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에 민중미술 운동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민중미술의 시민 미술교육 활동은 오늘날 우리나라 공동체 미술교육의 현대적 시원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건국대 학생들, 충주 교현천 벽화그리기 봉사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디자인마미디어 전공 학생들이 충주 성내충인동 교현천 벽화 그리기 봉사를 실시했다.

벽화는 지난해 관아골 벽화 프로젝트에 이어 학교와 성내충인동이 협력한 두 번째 사업이다. 이번 벽화 봉사에는 디자인마미디어 전공 2학년 수업인 '미디어 콘텐츠드로잉' 학생들과 미디어학부 1학년, 디자인학부 1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충주시 문화회관 인근 교현천 200m 구간에 벽화를 그렸다. 벽화 사업은 성내충인동 새마을협의회가 도입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올해 2월 주민센터에서 1차 회의를 진행했고, 4~6월 박성연 교수와 학생들이 답사·기획·미그림·채색에 참여했다.

다이나믹미디어학과와 성내충인동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충주 성내충인동 교현천 벽화 모습.

/건국대학교